

김제 금산교회의 한옥건축 특성과 경역에 관한 연구

김윤상
전북대학교 한옥사업단 교수

A Study on the Hanok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Boundaries of the Geumsan Church in Gimje

Yun-Sang Kim
Professor, Hanok Cente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한옥교회는 우리나라 근대시대의 생활상을 종교적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근대시대 건립된 한옥교회의 경역과 한옥 건축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남아 있는 김제 금산교회를 현지답사 및 인터뷰, 수리보고서를 조사 분석 하였다. 금산교회는 현존하고 있는 한옥건축물로 건축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의 기능을 담당한 유광학교도 한옥건축물로 자료를 통해 위치와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금산교회의 경역은 현재의 담장이며 서측은 건물이 동측은 운동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산교회의 평면은 당시의 유교사상을 반영하여 ㄱ자형 공간으로 구성하여 남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유광학교는 2칸 규모로 강의에 적합한 一자형 통구조로 현대 교회의 진입부 부분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금산교회, ㄱ자형 한옥, 근대 한옥교회, 공간구성, 유광학교

Abstract The Hanok church is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that can be considered from a religious point of view of life in the modern age in Korea. We will investigate the boundaries of the Hanok church built in modern a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Hanok architectural. To do so, we have conducted field trips, interviews, and repair reports of the Gimje Geumsan Church in the Jeollabuk province. The Geumsan Church is present, an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can be confirmed in detail. In addition, Yugwang School, which was responsible for the education function, was able to guess the location and size through the data. As a result, the boundaries of Geumsan Church is the present fence, the west side has the building, and the east side has the playground. The Geumsan Church 's flat form was divided into male and female according to the space configuration of ㄱ-shaped reflecting Confucian thought of the time. And it seems that the Yugwang school was located in the entrance part of the modern church with a two-frame scale, which is suitable for lecture.

Key Words : Geumsan Church, ㄱ-Shaped Hanok, Modern Hanok Church, Space Configuration, Yugwang School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개신교는 1832년 독일인 구츠라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고,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 이후 선교활동이 활발해졌다. 1885년 H. G 언더우드 목사와 H.

D 아펜젤러 목사에 의하여 선교 사업이 서울에서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전라북도는 1893년부터 선교활동을 할 선교사나 선교사가 거처할 공간을 전주에 확보함으로써 개신교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1894년 3월 테이트(Rev. L. B. Tate, 한국명 최의덕/(1862~1929)) 등이 전주에 정착하면서 전라북도에 개신교가 뿌리를 내리

*Corresponding Author : Yun-Sang Kim (ksunys@hanmail.net)

Received July 2,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30,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게 되었다[1-4]. 교회의 형태는 선교 초기에 신자들의 집을 이용하거나, 새로 건축하는 등 여러 형태의 교회 건축이 등장하게 되었다. 개신교는 선교뿐만이 아니라 의료, 근대학교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근대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5].

이중 근대기의 한옥형교회로 대표적인 형태인 ㄱ자형 한옥교회는 남녀구분을 기조로 한 유교사상이 평면에 반영되어 초기 개신교의 독특한 형태로 남아 있다. 기존 연구나 자료 조사에 의하면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북한과 남한 만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의하여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6].¹⁾ 집의 형태는 초기에 초가 형태로 건립되다가 와가나 골합석 등으로 변형되어 우리나라의 토착건축형태가 점차적으로 서양의 교회건축 양식을 반영하여 발전하여 왔다[7]. 그래서 주거건축은 주변 환경과 연계되어 장소성이 나타난다[8,9].

“ㄱ”자형 한옥교회는 Table 1과 같이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0]. 현재 기존의 대지에 원형으로 남아있는 ㄱ자형 한옥교회는 김제 금산교회와 익산 두동교회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록이거나 새로운 대지에 복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1].

Table 1. Distribution of the ㄱ-shaped Hanok Church[10]

Church name	Year	Structure	Roof
Sorae Church	1883	Brick, Wooden	Paljag, Waga
Jeonju Seomoon	1893	Mud Brick, Wooden	Paljag, Waga
Jangdaehyeon	1894	Wooden	Paljag, Waga
Gunsan Guam	1896	Wooden	Thatched roof
Hamheung Central	1896	Wooden	Paljag, Waga
Gwangju North Gate	1904	Stone, Brick, Wooden	Gable roof, Waga
Gwangju South Gate	1904	Stone, Brick, Wooden	Paljag, Waga
Gimje Geumsan	1905	Wooden	Woojin, Waga
Seoul Ahyeon	1905	Wooden	Paljag, Waga
Seoul Myodong	1910	Stone, Brick, Wooden	Gable roof, Waga
Iksan Dudong	1923	Wooden	Woojin, Zine
Manju Yongjeong	1924	Wooden	Paljag, Waga

ㄱ자형 한옥교회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인문학적 환경과 건축적 변화에 대한 고찰, 종교로 인한 그 시대 생활상을 고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자산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 한옥 중 현재까지 잘 남아있는

1) ㄱ자형 대표 교회를 보면 황해도 소래교회, 평양 장대원교회, 전주 서문밖교회, 광주 북문안교회 등으로 전역에 분포하고 있음.

김제 금산교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근대기 ㄱ자형 한옥 교회의 건립과 변천과정, 건축적 특성을 조사하고 특히, 근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성격을 조사하여 당시의 영역을 확인하면서 원형을 찾아 앞으로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조사

본 연구의 조사는 우리나라 현존하는 근대기 ㄱ자형 한옥교회의 대표적인 사례인 김제 금산교회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방법은 금산교회의 기록조사와 보수이력 등을 통한 건축의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회록과 현재 교회의 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Fig. 1과 같이 현재 담임목사인 이인수 목사님의 인터뷰와 지역주민 전언 등을 조사하여 금산교회의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유광학교와 종탑, 우물 등 당시의 영역을 확인하고 배치도를 작성하여 원형을 회복하면서 보존과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 Interview

2. 금산교회

2.1 금산교회의 역사와 변천

미국 남장로 교회는 1892년 선교사를 한국에 처음으로 파견 하였으며 1894년 테이트 선교사와 그의 여동생 매티 테이트(Tate, Miss Mattie Samuel, 한국이름 최마태/1864~1940) 선교사를 전주에 상주시키면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동학혁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가 없어 잠시 선교를 중단 하였다가 1895년 전주가 평온을 찾으면서 전주에 초가를 구입하고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12].

최의덕 선교사는 전주에서 김제 금산으로 말을 타고 선교활동을 시작하던 중 이 지역의 지주인 조덕삼을 만나 유교를 믿는 보수적인 가풍의 조덕삼을 포교하기에

이르렀다. 조덕삼은 자신의 집 사랑채를 예배장소로 내주고 자기 집의 마부인 이자익과 용화리 마을뿐만이 아니라 두정리, 청도리, 신기리에 사는 사람들을 모아 예배를 보기 시작하였다. 당회록 등 기록에 의하면 조덕삼, 이자익, 박화서가 1905년 10월 11일 학습 받은 것으로 추정하건대 그보다 앞선 1904년경부터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금산교회는 두정리교회, 팻정리교회 등으로 불리었으며 1905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1905년 이전에는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05년 조덕삼이 두정리에 있는 과수원 대지를 회사하여 거기에 다섯 칸짜리 한옥교회를 설립하였다. 당시 이 한옥교회가 초가인지 와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시대상들을 고려하였을 때 초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인들이 늘어나자³⁾ 1908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옥교회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교인들은 직접 모악산에 가서 재목을 베어와 목수 최광진 장로의 3형제가 지금의 형태인 7자형 한옥교회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1907년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를 투표로 선출하였는데 후보가 지주인 조덕삼과 마부인 이자익이었다. 금산교회의 초대 장로는 마부 이자익이 선출되었고, 주인인 조덕삼이 이를 축하하고 마부의 설교를 들으며 마부를 섬기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개신교가 민중을 향하여 발전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사건이었다. 양반과 상민, 지주와 하인이 존재하던 이 시대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은 한국교회에 큰 사건이었고, 1893년 건립된 서울 승동교회에서 백정 출신이 먼저 장로로 선출되자 양반들이 이탈한 다른 사례에 대비되는 일이었다[13,14].

금산교회는 초창기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지역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두어 교회 내에 유광학교를 건립하여, 한글, 역사, 성경을 가르쳤으며, 축구부 등을 두어 체력단련에도 힘썼다. 그 후 동광학교로 개명하여 학생들 교육에 힘썼으나 신사참배 거부 등으로 일본경찰의 감시가 심해지고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조선어사용을 금지하자 조영호 장로는 스스로 동광학교를 폐지하고 야학운동을 전개하였다. 전시관에 전시된 당회록을 읽어보면 조○○은 도박을 하여 3일간 학습을 못하게 하였으며, '반성토록 한 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였

다' 등을 볼 때 금산교회는 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사상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학을 양성함으로써 미래 독립을 위한 밑말과 같은 일을 하였던 것이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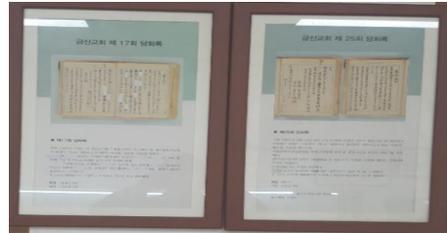


Fig. 2. Minutes of the session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산교회는 초기 우리나라 개신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호남지방의 독립운동 거점으로서도 역할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금산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주변에 금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영험이 있다하여 내세미룩이 본산인 금산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모악산 대원사에서 도를 닦은 고부사람 강일순이 세운 증산교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시대 종교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곳이 금산교회가 위치해 있는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이다[16].



Fig. 3. Organ of Church

2015년 금산교회 종교문화유산 전시관을 도로 맞은편에 99㎡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전시관에는 당시 예배를 보는 형상의 미니어처와 당회록, 학교 교과서 등이 전시되어 있고, 테이트가 금산교회에 올 때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100년 정도 된 오르간이 Fig. 3과 같이 전시되어 있다.

2) “1905년 金堤郡 頭亭理教會가 成立하다. 先是에 本處敎人 李自益, 趙德三 等이~”

3) 교회 내부 상량문 구절 :一千九百八年戊申陽四月~

2.2 금산교회의 건축적 특성

금산교회는 현재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407

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36호(1997.7.18)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금산교회는 1905년 5칸으로 건립되었으나 신도들이 많아짐에 따라 1908년 현재와 같이 7칸 한옥으로 건립되었다[17,18].⁴⁾ 공사기간은 1908년 3월2일에서 동년 4월 4일이며 자재수급은 모악산에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베어왔고, 기둥 등 주요부재는 전주에 있는 재실을 해체하여 교회당 부재로 사용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남북으로 5칸, 북쪽 모서리에서 동쪽으로 2칸을 이어 붙였다. 평면은 조선시대 남부지방의 살림집 형태인 一자형 집을 기준으로 공간을 예배당과 부엌으로 구성되어 부엌이나 외양간을 직각으로 붙인 7자형태의 추가집으로 건축되었다. 북서쪽 모서리에는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3평정도의 강단이 2단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바닥을 포함하면 단상이 3단 구조를 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전통 제단의 형식을 따면서 뜰,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지는 구약 성막의 3중 구조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는 기단의 경우 외벌대 자연석 기단이며, 초석 또한 자연석 덩벙주초로 모악산 주변에서 채취하였다고 한다. 지붕은 초기에는 추가집이었으나 여러 차례 보수과정을 거치면서 골합석이나 시멘트합석, 현재의 와가 형태로 변천되어 왔다. 가구구조는 남도리 5량가로 대들보 위에 종보를 받치는 2중보 구조이다. 대들보나 종보는 나무의 자연곡선을 살려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5량가 구조에서는 건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대부분 고주가 있는데 금산교회는 고주 없이 대들보와 종보로 하여금 하중을 받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지붕 가구구조가 모두 노출되어 있으며, 남녀석 천장 도리에 상량문이 있다. 강단의 오른쪽 귀퉁이에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남북방향으로 남자석의 공간, 동서방향은 여자석의 공간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남녀를 구분하던 시대적 의식이 담겨있다. 남녀석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기둥에 줄을 매고 휘장을 쳐서 남녀석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차단 기능을 한 휘장은 1930년대 전후 제거되었고 이후 정비과정에서 설치되어 현재는 확인할 수 있

4) 조덕삼이 과수원을 교회부지로 헌납하였고 이자익을 중심으로 한 교인들이 모악산에서 부재를 베어왔으며 최의덕 선교사가 1908년 3월2일 기공예배를 드리고 4월4일 헌당식을 하였다 한다. 또한 교인중 최광진 목수 형제가 자발적으로 나서 교회당 건립을 하였으며, 조덕삼은 모악산 너머 배재(梨峴)에 있는 전주이씨 재실을 인수 해체하여 기둥 등 주요부재를 교회당 목재로 사용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 또한 곡재를 활용한 외기どり 하부에 층량을 설치하여 우진각 지붕의 추녀를 안정적으로 받으며 높이를 조정하고 있다. 전통건축의 경우 퇴보를 설치하여 뒷마루 등 외부 공간 확보를 꾀하였을 것이나 교회당의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를 통구조로 조성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층량 등의 부재는 전통적 한옥건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당의 공간적 필요성을 수용한 전통건축 양식에 서양의 공간구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조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기둥의 주간 간격은 2,580mm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2,520mm와 1,230mm를 상황에 따라 등분배 조정하였다. 기둥의 형태는 방형기둥이며 연목은 보통 $\varnothing 135$ (말구 $\varnothing 120$)이고 덧추녀는 $\varnothing 180$ 정도이다. 부재규격을 볼 때 전통적인 와가로 보기에 규격이 작고 3량가 추가 부재보다는 규격이 크다. 내부마루는 장마루이며 면적은 141.52 m^2 이다.

외부 출입문은 세 개가 있는데 남자가 출입할 수 있는 남쪽과 여자가 출입할 수 있는 동쪽, 목사가 출입할 수 있는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모두 세 살문이다. 특히 북서쪽에 설치된 목사의 출입문을 작게 만든 것은 강단의 높이가 있어 구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허리를 굽혀 겸손함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을 적용하여 설치하였다고 한다. 금산 교회 창호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서기 유리창이 출입문을 제외하고 설치되어 있었다[8]. 그러나 현재는 여단이 한식 창호로 설치되어 있다.

Table 2. Main wood material of Geumsan Church

Division	Shape	Size(mm)	Material
Column	Square	165×165	Existing materials
Crossbeam	Square	210~300×240×300	Natural curve
Jongbo	Square	180×270	Natural curve
Chunglyang	Square	155×240	Natural curve
Girder	Square	135×180	Trimming
Rafters	Circle	$\varnothing 135$	Trimming
Chunyeo	Square	180×270	Existing materials
Lower sill	Square	90×105	Trimming
Middle sill	Square	90×160	Trimming
Upper sill	Square	90×180	Trimming
Tile fillet	Square	75×75	Trimming
Cant strip	Square	85×65	Trim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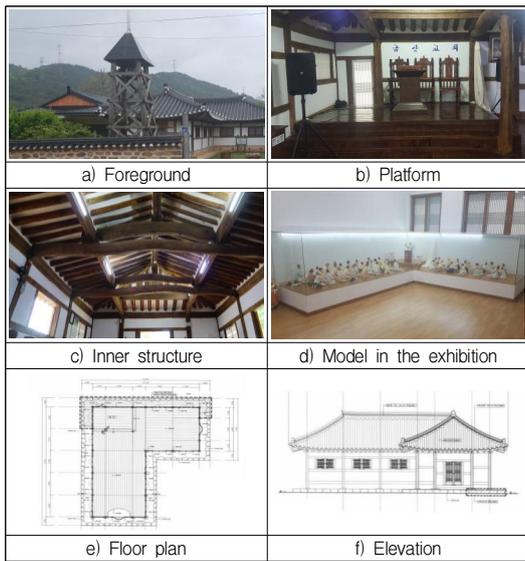


Fig. 4. View and drawings of Geumsan Church[19]

목사는 여성 쪽을 바라보지 않고 남자 쪽만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였으며 이는 당시의 남녀유별의 유교사상을 철저히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7]. 목사가 설교하는 제단을 꾸미는 과정에서도 전통과 서양 교회목사의 강단을 조합함으로써 한국전통 건축물에 서양의 사상을 접목하는 예배당의 변천을 보여준다. 이렇게 유교사상을 온전히 건축공간에 구현하면서 서양 예배당의 의식적인 부분이 적용되어 건립된 교회당이 금산교회이다. 이렇게 금산교회는 1900년 초 개신교가 한국에 유입되면서 초기형태의 교회당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전통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을 건축에 투영하여 건립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한옥 형태에서 근대한옥으로 변천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격식에 의한 공간구조 보다는 실용성에 의하여 공간구성을 한 서양의 공간구성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

3. 금산교회의 경역 및 유광학교

3.1 금산교회의 경역

Fig. 5는 금산교회의 경역을 추정하는데 유광학교에 관한 위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금산교회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유광학교는 현재 현대식으로 지은 금산교회의 자리에 있고 방향은 지금과 반대로 도로와 직각방향

으로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금산교회의 경역은 현 담임목사인 이인수 목사의 전언에 의하면 현재 담장의 범위이고 북측에 있는 우물은 현재 자리가 원형이고 남측의 종탑과 종은 2003년에 복원되어 본래의 위치에 자리했다고 한다. 사택이 있는 곳은 밤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전체 경역은 약 1,454㎡로 추정된다. 유광학교 위치는 도로면에 직각이며 종탑과 우물, 그리고 한옥교회와 접해 있었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유광학교 축구부가 김제에서 축구를 가장 잘 했다고 하니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동측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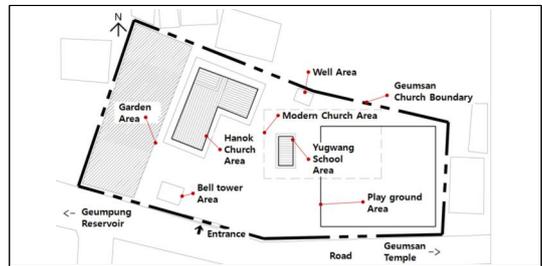


Fig. 5. Estimated location of Geumsan Church

3.2 유광학교의 건축적 특성

금산교회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유광학교의 공간규모는 건평 40평에 두 칸의 초가로 건립되었다고 한다[15]. 그러나 건평 40평 규모의 두 칸 초가는 현재 금산교회의 지붕을 포함한 면적과 유사한 규모로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 정도의 규모로 학교가 건축되었다면 주 건물인 금산교회보다 더 큰 건물이 된다. 이는 주 건물에 위계를 가지는 전통건축 구성 원리에 벗어난다. 또한 기록으로 전하는 두 칸은 40평 규모를 건축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 초가의 한 칸의 길이는 약 1.818m 정도이나 금산교회의 주 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58m로 초가의 한 칸의 길이보다 넓다. 또한 지붕을 구성하는 연목부재도 크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재력을 가진 건축주의 의도로 보이며 이를 고려하여 유광학교의 규모도 결정되었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금산교회가 남북으로 다섯 칸, 북에서 동으로 두 칸으로 모두 합쳐 27평 건물이라고 되어 있다. 즉, 교회당 건물의 내부면적은 7칸으로 한 칸에 약 4평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유광학교 교사인 김종규가 1925년 금산교회 5대 장로로 장립한 이후 학감으로 유광학교 운영보고 때 여학생 20명, 남학생 40명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여

학생의 수용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유광학교의 초기 규모를 추정하면 한 칸이 3m이내로 건물은 약 10평 미만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유광학교의 내부공간은 통구조로 강당의 기능을 강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재 및 구조는 금산교회가 주 건물이므로 유사하거나 작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재료 수급은 금산교회 부재 수급과 동일하게 주로 모악산에서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 유광학교의 가구 구조는 3량가 정도의 규모로 기단은 외벌대로 자연석 기단이며 초석은 자연석 덩벙 주초로 추정한다. 기둥은 정방형으로 165mm이고 대들보는 210×240mm, 도리 135×180mm, 인방부재는 폭이 90mm이고 높이는 하인방 105mm, 중인방 160mm, 상인방 180mm으로 구성하고 연목은 Ø135이고 말구는 Ø120으로 소매견이를 했을 것이다. 지붕의 재료는 금산교회에 동일하게 벚짚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추가인 금산교회의 지붕이 웅장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는 건축주 조덕삼의 재력과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벼농사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짚을 활용하여 건축하는 기술이 발전되었고 특히 김계는 평야지로 기와보다는 짚을 자유롭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유광학교의 평면과 단면도를 Fig. 6과 같이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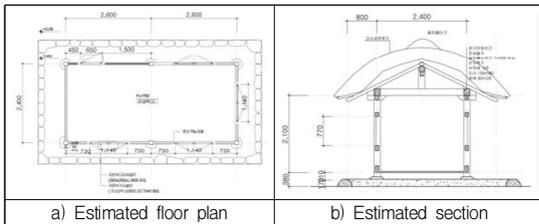


Fig. 6. Estimated drawing of Yugwang school

4. 결론

김계 금산교회는 1900년대 초 우리나라 격동의 시기에 건립된 종교건축물이다. 동학혁명과 3.1운동을 거치면서 개신교가 전라북도지역에 자리매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적인 측면에서 ㄱ자형 한옥교회가 당시의 유교사상을 반영한 남녀유별의 공간이나, 교회당의 특성을 감안한 내부를 통구조로 함으로써 서양 건축과 사상을 투영한 건축적 특성을 고스

란히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교육 및 생활을 지원하던 곳이다.

본 연구에서는 담임목사와 지역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원래의 경역이 현재의 담장을 경계로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여 그 면적이 약 1,454㎡ 라는 것을 알았다.

창립당시 금산교회의 배치는 ㄱ자형 본당 교회와 우물, 종탑이 현 위치에 있고 10평 내외의 추가인 유광학교가 교회에 접해 서측에 자리하고 학교에서 축구부를 운영했던 것을 보아 동측에는 운동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금산교회 경역의 구성은 현재는 와가로 된 ㄱ자형 교회 본당과 새로 지은 교회, 화장실, 사택, 우물, 종탑 등으로 되어 있는데 원형의 경역은 추가로 된 교회본당, 유광학교, 종탑, 우물, 정원, 그리고 운동장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산교회는 건축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초창기 한옥형 교회건축으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동학혁명 등 당시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건축물이다. 또한 김계 지주 조덕삼과 그의 마부 이자익, 선교사 데이트 등의 인간관계와 종교적인 Story telling으로 맺어져 건립된 건축물이며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던 공간적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전 시관에 있는 오르간은 약 100년 정도 된 것으로 이 교회의 시작과 함께 한 역사적 유물이다.

그래서 금산교회는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국가사적으로 승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그 가치 규명에 대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산교회의 건축에 대한 학술대회나 인물에 대한 학술대회 등을 민관이 주관하여 금산교회의 가치에 대한 규명 작업과 더불어 교회와 관련된 시대적 배경, 종교적 내용, 인물사 등을 건축적 역학관계로 접근하여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 J. Kim. (1992). *100 Years of Honam mission and its ministers*, Seoul : Goryeogeulbang.
- [2] Prok. (1992). *100 Years of Korean Christianity*,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 [3] S. J. Kim. (1994). *100 Year of Protestantism in Jeonbuk*,

Jeonbuk : Jeonbukilbo.

- [4] S. K. Lee. (1998). Historical Flow of Korean Church, Seoul :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Publishing.
- [5] S. H. Kim. (1988). *Study on the protestant church architecture and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Korean protestant church architec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6] S. D. Oak (2008).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Protestant Churches in Korea: Christian Modernity and Indigenization 1895-1912. *The Dongbanghakch*, 141, 267-321.
- [7] G. S. Yoon. (2007). A study on the Image in the early Korean Church Construction-Focusing on Korean style Church & ㄱshaped church. *The Society of Korean Photography*, 16, 133-144.
- [8] I. M. Jun. (2017) A Study on the Site Analysis Considering a Fused Relationship of the Architectural Site and Surrounding Contex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5), 275-285.
- [9] Y. S. Kim. (2018)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atched Houses in Northern Region Gangwon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8), 161-169.
- [10] S. J. Hong & , M. K. Yee. (1998). A study on the ㄱ shaped Church in Korean Protestant Churches.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7(17), 113-130.
- [11] Dudong. (1997). *Dudong Church, 97 years Church life*. Jeonbuk : Dudong church.
- [12] Seomun. (1994). *100 years of Jeonju Seomun Church*. Jeonbuk : Seomun Church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Publishing.
- [13] D. I. Kim. (1995). *Hidden Korean Church History*. Seoul : Handl publishing.
- [14] Kcl. (1992). *Christian Encyclopedia*. Seoul : Kcl publishing.
- [15] Geumsan Church. *Minutes of the session of Geumsan Church*.
- [16] General assembly. (1998). *Preservation of Christianity cultural assets*. jeonbuk : Founding general meeting.
- [17] S. J. Kim. (2005). *The story of Lee ja-ik*. Seoul : Korean presbyterian publisher.
- [18] S. J. Kim. (2008). *The story of Elder Jo duk-san*. Seoul : Jinheung.
- [19] Gimje city (2016). *Repair report of maintenance work of Geumsan church*. Jeollabuk-do.

김 윤 상(Kim, Yun Sang)

[정회원]



- 2006년 2월 : 세한대학교 건축공학과(공학사)
- 2009년 2월 : 세한대학교 도시건축과(공학석사)
- 2017년 2월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공학박사)
- 2017년 5월 ~ 2018년 2월 : 일본 가고시마대학교 건축과 객원연구원
- 2011년 6월 ~ 2018년 2월 : 전북대학교 한옥센터 팀장
- 2018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한옥사업단 교수
- 관심분야 : 건축, 한옥, 건조물 문화재
- E-Mail : ksunys@jbnu.ac.kr